

2026학년도 모의논술고사

인문계열 채점기준



[문제 1]

[문제 1-1] 제시문 (바)에 등장하는 소설의 갈등 상황을 제시문 (가)~(마)를 활용하여 설명하시오. 제시문 (가)~(라)를 두 가지 관점으로 분류하고 제시문 (마)의 관점을 포함한 3가지 관점으로 설명할 것. 글의 분량은 띄어쓰기를 포함하여 300(±50)자로 할 것. (20점)

[문제 1-2] 제시문 (가)~(바)를 종합적으로 활용하여, 현대 사회에서 개인의 다양성과 공동체의 연대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제시하고, 바람직한 방안에 대해 구체적인 예시를 들어 논하시오. 글의 분량은 띄어쓰기를 포함하여 500(±100)자로 할 것. (30점)

1. 출제의도

- [문제 1-1] 내용의 사실적 이해 능력과 분석력을 평가하는 것.
- [문제 1-2] 창의적인 사고력과 논리적 구성 능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것.

2. 예시 답안

[문제 1-1]

(바)는 개인의 자유와 공동체의 기준 간의 갈등을 보여준다. (가)와 (라)의 관점에서 볼 때, 영혜의 채식은 타인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한 최대한 보장되어야 하는 개인의 자율적인 선택이다. 그녀의 자발성을 자유롭게 발휘하게 해야 하는데, 가족들은 일방적인 판단을 강제하는 해악을 저지른 것이다. (나)와 (다)의 관점에서 보면 가족은 공유된 식문화와 관습에서 이탈하려는 그녀의 선택을 공동체의 조화를 위해 조정하려 하였다고 할 수 있다. (마)의 관점에서 보면 가족과 사회는 육식을 정상으로 간주하고 영혜의 채식을 비정상적으로 보아 획일적인 가치관과 행동 양식을 강요한 것이다.(323자)

[문제 1-2]

(가)와 (라)는 개인의 다양성을 존중해야 한다고 말하지만 (나)에서 비판하듯 과도하면 공동체를 약화시킬 수 있다. (다)의 강조처럼 개인은 공동체의 가치와 역할 속에서 정체성을 형성하며 유대감을 통해 공동체의 선을 추구할 수 있다. 그러나 (마)는 정상을 잣대로 획일성을 강요하면 개인의 자유를 억압할 수 있다고 말한다. (바)는 소외되는 개인의 모습을 통해 다양성 존중과 소통의 필요를 보여준다. 그러므로 개인의 다양성과 공동체의 연대를 균형있게 유지하고 조화시키기 위해서는 교육, 제도, 대화를 통한 노력이 필요하다. 학교와 직장에서 다양성 교육을 의무화하고, 차별에 대해서 방지하는 교육과 캠페인이 필요하다. 집단적인 시스템에 개인의 선택을 보장하는 제도들도 도입해야 한다. 공동체의 연대를 위해서는 다양한 연령, 성별, 직업 등을 가진 사람들이 함께 참여하는 모임을 지원하는 제도도 도움이 된다. 마을이나 아파트 단지에서 층간 소음이나 반려 동물 관리 등으로 발생하는 갈등을 해결하고 생활 규칙을 협의하고 논의하여 자율적인 규칙을 만드는 공동체의 연대 경험도 가능하다. 개인의 다양한 관심사를 공동체에 나누고 기여하려는 자세와 서로 소통하려는 노력이 중요하다. (599자)

3. 세부 지침

[1-1] 제시문의 정확한 이해와 분석적 적용(20점)

① 제시문 이해와 분석의 정확성 (10점)

- (가)와 (라)의 자유주의, (나)와 (다)의 공동체주의, (마) 정상성 개념과 관련하여 핵심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요약하였는가?(5점)
- (바)의 영혜의 채식 행위와 가족의 반응을 잘 파악하고 정확하게 분석하였는가?(5점)

② 제시문간 비교 분석과 갈등 설명의 적절성(10점)

- 영혜의 행위를 자유주의적 관점으로, 가족의 반응을 공동체주의적 관점으로 적절하게 연결하고 설명했는가?(5점)
- 제시문 (바)의 갈등을 자유주의-공동체주의의 충돌, 사회가 강요하는 '정상성'이라는 관점을 적용하여 적절히 밝혔는가?(5점)

[1-2] 제시문의 종합적 활용 및 논제에 대한 심층적인 서술(30점)

① 제시문 (가)~(바)의 핵심 내용을 문제 해결을 위한 논거로 적절히 활용했는가?(5점)

- [1-1]에서 요약한 (가)~(마)의 내용을 활용하였는가?(2점)
- (바)의 소통 부재라는 문제를 포함하여 활용하였는가(3점)

② 현대 사회에서 개인의 다양성과 공동체의 연대가 문제되는 상황에 대해 분석했는가?(10점)

③ 개인의 자유 존중과 공동체의 연대 유지가 상호 보완적인 관계임을 제시하고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했는가?(10점)

④ 논리적 일관성과 표현의 적절성(5점)

- 논지가 명확하고 논리적 비약 없이 일관성 있게 전개되었는가?
- 어휘 사용이 정확하고 풍부하며, 문장력이 우수한가?

※ 감점 사항

① 분량 미달과 초과 : 5점 감점

② 독해에 지장을 줄 정도의 맞춤법 오류가 발견된 경우 : 5점 범위 내에서 감점

※ 자료 출처

(가) 고등학교 『통합사회』

(나) 마이클 샌델, 『정의란 무엇인가』, 아이즈베리, 2014.

(다) 고등학교 『통합사회』.

(라) 존 스튜어트 밀, 『자유론』, 현대지성, 2018.

(마) 김광기, 「정상과 비정상, 그리고 이방인」, 『사회이론』, 2008.

(바) 정미숙, 『한강, 채식주의자 깊게 읽기』, 더스토리, 2016.

[문제 2]

[문제 2-1] 제시문 (가)에서 제시된 연금제도 문제에 대한 세대간 정의 문제를 참고하여 제시문 (나)와 (다)에서 논의된 세 가지 질문에 대한 '소득보장파'와 '재정안정파'의 주장을 요약하시오. 글의 분량은 띄어쓰기를 포함하여 400(±100)자로 할 것.(25점)

[문제 2-2] 제시문 (다)의 '소득보장파'와 '재정안정파'가 (라)의 세 가지 분배의 실질적 기준 중 어느 기준을 가장 중시하는가를 설명하시오. 글의 분량은 띄어쓰기를 포함하여 400(±100)자로 할 것.(25점)

※ 각각 분량 미달과 초과 시 감점.

1. 출제의도

■ 이 문제는 사회적 불평등의 해소와 분배의 실질적 기준을 통해 세대 간 정의를 종합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가를 측정한다. 세대 간에 국민연금 개혁을 왜 그리고 어떻게 다르게 접근하고 있는가를 파악하는 것이 첫 번째 질문이다. 두 가지 서로 다른 입장에 내재되어 있는 분배의 실질적 기준을 이해함으로써, 세대간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사회적 합의의 가능성을 모색할 수 있다.

2. 예시 답안

[문제 2-1]

제시문 (가)는 고령 사회의 도래로 국민연금 수급자 수가 증가하여 연금 관련 지출이 늘어났지만 출산율 저하에 따른 경제 활동 인구의 감소로 국민연금 지출을 충당할 수 있는 재원은 부족해져 연금개혁이 불가피하게 된다는 사실을 제시하였다. 제시문 (나)는 연금개혁의 결과가 50-60대 노년층에게 상대적으로 유리하고 20-30대 청년층에게 불리하다는 사실을 보여주었다. (다)에서는 연금개혁을 둘러싼 세대간의 입장 차이를 '소득보장파'와 '재정안정파'의 대립으로 설명하였다. '소득보장파'는 노년층의 노후 소득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소득대체율을 인상하는데 찬성하였다. 반면, '재정안정파'는 청년층 부담을 증가시킨다는 이유로 소득대체율의 상승에 반대한다. 연금개혁의 경제적 부담이 노년층보다 청년층에게 더 많이 전가되었기 때문에 연금개혁이 세대간 갈등으로 비화하였다. (427자)

[문제2-2]

제시문 (다)에서 논의된 '소득보장파'와 '재정안정파'는 제시문 (라)의 분배의 실질적 기준에 대해서 다른 입장을 가지고 있다. '소득보장파'는 의식주를 비롯한 기본적 욕구 충족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필요한 재화나 가치를 제공하는 필요에 따른 분배를 중시한다. 이런 입장에서는 노년층에 대한 소득 보장은 어려운 사람들에게 대한 적절한 지원으로 간주된다. 반면, '재정안정파'는 업무 성과와 실적 정도에 따라 소득이나 사회적 지위 등을 차별적으로 배분하는 업적에 따른 분배에 초점을 두고 있다. 이런 입장에서는 노년층을 위해 청년층에게 더 많은 경제적 부담을 지우는 것은 공정하지 않다. 정의로운 분배를 위해서는 어느 하나의 특정한 기준에 따르는 것보다 양자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세대간 정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사회 구성원들 간의 대화와 협력을 통해 여러 기준을 적절하게 종합하는 제도와 정책이 필요하다. (457자)



3. 세부 지침

[2-1] 제시문 (가)에서 제시된 연금개혁에 내재된 세대 간 정의 문제를 이해하고 제시문 (나)의 '소득보장파'와 '재정안정파'에 대한 세대간 갈등을 이해할 수 있는 능력 평가 (25점)

- ① 연금개혁에는 세대간 정의 문제가 내재되어 있다는 사실을 점을 지적(5점)
- ② 연금개혁의 결과가 50-60대 노년층에게 상대적으로 유리하고 20-30대 청년층에게 불리하다는 사실을 지적(5점)
- ③ '소득보장파'는 노년층의 노후 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소득대체율을 인상했다는 점을 지적(5점)
- ④ '재정안정파'는 소득대체율의 상승이 청년층 부담을 증가시킨다는 점을 지적(5점)
- ⑤ 이번 연금개혁이 노년층보다 청년층에게 더 불리했기 때문에 세대간 갈등으로 비화하였다는 점을 지적(5점)

[2-2] 제시문 (다)의 연금개혁의 경제적 부담에 대한 세대간 이견을 (라)의 분배의 실질적 기준으로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을 평가 (25점)

- ① '소득보장파'와 '재정안정파'의 대립이 분배의 실질적 기준에서 나온다는 점을 지적(5점)
- ② '소득보장파'는 의식주를 비롯한 기본적 욕구 충족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필요한 재화나 가치를 제공하는 필요에 따른 분배를 중시한다는 점을 지적(5점)
- ③ '재정안정파'는 업무 성과와 실적 정도에 따라 소득이나 사회적 지위 등을 차별적으로 배분하는 업적에 따른 분배에 초점을 두고 있다는 점을 지적(5점)
- ④ 정의로운 분배를 위해서는 어느 하나의 특정한 기준에 따르는 것보다 양자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지적(5점)
- ⑤ 사회 구성원들 간의 대화와 협력을 통해 여러 기준을 적절하게 종합하는 제도와 정책이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5점)

※ 감점 사항

- ① 분량 미달과 초과 : 5점 감점
- ② 독해에 지장을 줄 정도의 맞춤법 오류가 발견된 경우 : 5점 범위 내에서 감점

※ 자료 출처

- (가) 육근록 외, 『고등학교 통합사회』, 동아출판, 2024.
 (나) 이진석 외, 『고등학교 통합사회』, 지학사, 2024.
 (다) 신성식, 「연금개혁 세대별 차이…30대, 월 8만~9만 원 더 받는다」, 중앙일보, 2025.03.19.
 (라) 정미숙, 「연금개혁, 세대별 접근 옳지 않다 vs 청년세대에만 책임 지우는 건 불공평」, 한국일보, 2025.03.30.